

# 王夫之 《夕堂永日緒論·外編》의 ‘經義’ 論 고찰(1)

趙成千\*

## <목 차>

1. 들어가며
2. 經義와 독서
  - 2.1 독서궁리, 충직신실
  - 2.2 독서 방법 및 태도
3. 자구운용 및 수사론
  - 3.1 자구 운용론
  - 3.2 수사론
4. 문과 비평
  - 4.1 王鏊·錢福을 大家의 종주로 추존
  - 4.2 충실·소박한 문장 파괴, 저속·진부한 감정과 언어 강구
  - 4.3 고정격식 및 死法으로 관호 배우고 글자 바꾸는 방식
5. 시대비평 및 작가비평
  - 5.1 시대비평
  - 5.2 작가비평
6. 나오며

## 1. 들어가며

經義는 과거 글쓰기의 문화유산으로 사라진 전통이 되었다. 經義는 본래 성현의 미언대의를 천발하기 위한 글쓰기였지만, 독서인의 科擧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 존재가치를 잃었다. 그러나 하나의 글쓰기 전통으로 자리매김

\* 乙支大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助敎授.

되었던 經義를 단순히 표면적인 평가로만 재단하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글쓰기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부정이다. 지금까지 經義의 글쓰기에 대한 고찰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經義라는 과거 글쓰기 문화유산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논자는 왕부지의 저작 《夕堂永日緒論·外篇》54條(1992년 嶽麓書社 판본)를 연구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經義의 문체적 기능·작법·풍격·자구운용과 수사·작가 및 시대 비평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부지의 經義에 대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經義라는 과거 글쓰기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王夫之《夕堂永日緒論·外編》의 '經義'論 고찰(1)에서는 經義와 독서의 관계·자구운용 및 수사론·비평론 등을 다루고, 王夫之《夕堂永日緒論·外編》의 '經義'論 고찰(2)에서는 왕부지의 經義에 대한 훈도·창작·창작론 및 經義의 法 등을 검토한다. 두 편의 연구로써 왕부지의 經義에 대한 이론적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經義에 대한 종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經義와 독서

### 2.1 독서궁리, 충직신실

왕부지는 經義를 지움에 반드시 독서하고 궁리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충직과 신실을 강조하였다.

良知의 說이 천하에 가득 찼으니 사람들은 독서하고 窮理하여 경계를 삼아야 한다.<sup>1)</sup>

www.kci.go.kr

1) 《夕堂永日緒論·外篇》, 22條: 良知之說充塞天下, 人以讀書窮理爲戒. 이하에서는 《夕堂永日緒論·外篇》 서명을 생략하고 조목만을 표시함.

羅泌은 字學에 대해 논하여 “가슴 속에 수천 권의 책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충직하고 신실한 행위가 없다면 비록 (필법이) 힘차고 절묘하며, 팔법을 갖추고 운용하여 옥이 구르고 금이 드리우며 流暢하고 아름다우며 淸俊하고 超逸한 경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조금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일찍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문장을 논하는데 좋음이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고 여겼다.<sup>2)</sup>

만약 고금의 四部서적 등 많은 문장을 읽지 않고, 작가의 충직하고 신실한 행동이 없다면 경계가 뛰어난 문장을 얻을 수 없고, 세속의 저속함이나 익숙한 격식에 빠져서 저급한 문장이 된다고 여겼다.<sup>3)</sup>

## 2.2 독서 방법 및 태도

독서는 마음을 가지고 옛날 문장에 들어가서 정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옛날 문장을 가지고 마음속에 넣고 이를 급히 토해내고자 하면 道聽塗說이 된다.<sup>4)</sup> 독서할 때는 위아래 문장을 면밀하게 연구 문장 속에 잠기어 헤엄치면서 立言의 취지를 구해야 한다.

글자가 간략하면 뜻을 취함이 자연히 넓어지니 한 글자를 통술하여 운용하더라도 사용하는 곳에 따라 다르니 위아래의 문장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문장 속에) 잠기어 헤엄치면서 그 立言의 취지를 구하면 (한 글자의 의미의) 차이가 드러난다.<sup>5)</sup>

또한 독서를 하여 經義를 지음에 완전히 이해하여 말하고 博通과 聰敏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 
- 2) 44條: 羅長源論字學云: “胸中無數千卷書, 日用無忠信之行, 則雖蠶尾銀鉤, 八法備舉, 求其落玉垂金, 流奕清舉者, 乃至一點亦不可得。”嘗服膺此言, 以爲論文之善, 莫過於是。
  - 3) 34條: 不博極古今四部書, 則雖有思致, 爲俗軟活套所淹殺, 止可求售於俗吏, 而牽帶泥水, 不堪挹取。
  - 4) 25條: 欲除俗陋, 必多讀古人文字, 以沐浴而膏潤之。然讀古人文字, 以心入古文中, 則得其精髓; 若以古文填入心中, 而亟求吐出, 則所謂道聽而塗說者耳。
  - 5) 29條: 字簡則取義自廣, 統此一字, 隨所用而別: 熟繹上下文, 涵泳以求其立言之指, 則差別畢見矣。

陳際泰가 3개월에 21史를 두루 읽었다고 스스로 이르렀으니 시력이 뛰어난을 알 수 있다. 이에 그 “하늘이 높다”라는 한 단락의 문장에 있어서 역법에 대해 경솔하고 또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을 하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에 그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역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즉시 벽 쪽으로 던져 버렸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배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으로 말하고 지나가서 오히려 어그리짐이 없게 되었으니 오직 박통과 충민을 과시하고자 않았기 때문이다. 陳際泰가 박통과 충민으로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겼기 때문에 道를 문란 시켰다.<sup>6)</sup>

經義를 지음에 독서에서 완벽한 이해가 없을 경우 내용에서 차이가 야기되고, 박통과 충민을 과시하였을 경우 道를 문란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3. 자구운용 및 수사론

#### 3.1 자구 운용론

##### 3.1.1 한 글자라도 生死와 관련되는 것처럼 써야

언어 운용에 있어 ‘誠實’을 강조하여 한 글자라고 生死와 관련되게 운용해야 한다.

虛字를 채우고 쌓는 것이 가장 비천하다. 농염한 말을 채우고 쌓는 것은 진실로 추악하지만, 虛字를 채우고 쌓는 것은 더욱 (뜻이)생기가 없어서 가증스럽다. 문장을 짓는데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글자를 천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楊炯·盧照隣·駱賓王은 오직 넘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천박하다. 八代家를 배우는 사람은 “之”·“而”·“其”·“以”가 층층이 쌓이고 서로 중첩되니, 마치 풀과 띠를 베어서 선별하지도 않고 한 다발로 묶어놓은 것과 같고, 또 반쯤 죽은 지렁이가 질

6) 46條: 陳大士自云三月而徧讀廿一史,目力之勝可知。乃其“天之高也”一節文字,於曆法粗率且未曉了,出語便成差異。想其讀史時,於〔曆(麻)〕志無能曉處,便擲向一壁去。先輩於所未知,約略說過,卻無背戾,惟不欲誇博敏。大士以博敏自雄,故亂道。

질 끝먼서 가는데 건디어 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모두 천박하다. 고인은 글자를 다스려 문장을 짓는데 誠實함을 세웠으니, 한 글자를 쓰는 것은 바로 生死와 관련 되었다. 曾鞏·張耒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으리오?<sup>7)</sup>

문장에서 한 글자 한 글자는 모두 작가의 사상감정을 충실하도록 전달해야 한다. 무의미한 虛字가 많이 사용될 경우 생기가 없어져 천박하다.

### 3.1.2 자구의 조탁과 기교, 시정어와 저속어 및 포피적 언어 반대

글자를 조탁하고 고정격식에서 화려한 수식을 강구해서는 안 되며<sup>8)</sup> 자구를 가지고 장난하여 기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전전공공하니, 마치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戰戰兢兢, 如履薄冰)”과 같은 것을 간략하게 “빙경(冰兢)”이라 하고, “생각은 시종 배운 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念終始典于學)”과 같은 것을 줄여서 “념전(念典)”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자거리의 잡담이나 저속한 의원, 관상쟁이들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하여 “눈을 더럽히고 귀를 떠들썩하게 하는 말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sup>9)</sup> 또한 글자의 표면적인 뜻을 취하여 기교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장은 마음을 미혹하고 상란하게 하는 말이 된다.<sup>10)</sup>

7) 7條: 填砌最陋。填砌濃詞固惡, 填砌虛字愈闌珊可憎。作文無他法, 唯勿賤使字耳。王、楊、盧、駱, 唯濫故賤。學八大家者, “之”、“而”、“其”、“以”, 層(累)相(疊), 如刈草茅, 無所擇而縛爲一束, 又如半死蚓, 沓拖不耐, 皆賤也。古人修辭立誠, 下一字即關生死。曾子固、張文潛何足效哉!

8) 20條: 文字至琢字而陋甚; 以古人文其固陋, 具眼人自和哄不得。

9) 22條: 如“戰戰兢兢, 如履薄冰”, 而撮云“冰兢”; “念終始典于學”, 而撮云“念典”。乃至市井之談, 俗醫星相之語, 如“精神”、“命脈”、“遭際”、“探討”、“總之”、“大抵”、“不過”, 是何汚目聒耳之穢詞, 皆入聖賢口中, 而不知其可恥。

10) 21條: 文字至撮弄字面, 而穢極矣。黃葵陽已啓其端, 至萬曆壬辰而益濫。陳懿典《憲章文武》出題云: “國憲王章, 本朝爲重; 闡文釋武, 昭代爲尊。”此是何等語, 而一時傳誦爲警句! 嗣後效之以不通者三十餘年。崇禎(間)諸名人力爲洗滌, 然猶有云: “天無子, 人之聖者爲其子; 海無內, 人之聖者居其內。”(“德爲聖人”四句會墨) 如此迷惑喪心之語, 猶拔作南宮首卷, 文字安得不陋, 士習安得不偷邪?

### 3.1.3 뜻을 표현하기 위한 글자의 정련

비록 자구의 수식과 조탁을 반대하였지만 뜻을 곡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려운 글자라도 피하지 않으며 자구의 정련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글자가 아니고서는 이 뜻을 곡진하게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면 그 어려운 글자라도 피하지 않고, 이 글자를 사용하여 이 義를 이미 충분히 곡진하게 표현한다면 정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언어는 반드시 곡진하게 표현되어 펼쳐진다면 길게 말하여도 남음이 있게 되지 않는다. 意가 간략하게 되어도 전달될 수 있다면 번다함을 제거하고 간결함을 따르더라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稽世臣·湯顯祖 등의 여러 노련한 작가들이 독보적 경지를 이룬 바이다. 어려운 글자를 피하고 정련됨을 사용했으나 意가 펼쳐지지 않으면, 마치 썩은 나무를 두드리는 것과 같다. 정련을 싫어하면서 어려운 글자를 사용하면 언어가 가시가 되니 마치 새의 울음을 배우는 것과 같다.<sup>11)</sup>

그러나 “意가 없으면서 말을 덧붙이는 것은 단지 수식일 뿐”<sup>12)</sup>으로 뜻이 없이 자구만을 수식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 3.1.4 思惟를 통해 문장을 써야

사유를 통해 정미함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高超와 卓越함을 단련하는 문장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李贄가 말재주 좋은 혀로 천하를 현혹하고 袁宏道·焦竑이 그를 생각 없이 추대한 것으로부터, 이에 제멋대로 붓을 놀렸다가 지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고서 精微함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高超와 卓越함을 단련하는 문장을 책망하여 “생각을 씹고 식초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萬曆 壬辰년 이후로 문장의 비속과 천박이 (지금보다 심한 경우가) 일찍이 없었다. 만약 반드시 思維를 거치지 않은 뒤에야 자연스런 문장이 될 수 있다면 공자가 말한 바의 草創·討論·修飾·潤色은 쓸데없이 헤아리는 것일지 모르니 또한 “생각을 씹고 식초를 마신다”

11) 32條: 非此字不足以盡此意, 則不避其險; 用此字已足盡此義, 則不厭其熟。言必曲暢而伸, 則長言而非有餘; 意可約略而傳, 則芟繁從簡而非不足。稽川南, 湯義仍諸老所爲獨絕也。避險用熟, 而意不宜, 如扣朽木; 厭熟用險, 而語成棘, 如學鳥吟。

12) 33條: 無意而(着(著))詞, 纔有點染。

는 것일까? 예를 들어 陶望齡의 문집을 읽어보면 그의 序·記·書·銘은 虛字를 사용함이 마치 거미줄이 나비를 걸리게 하는 것처럼 하고 實字를 사용함이 나막신 굽에 진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며 고금의 雅俗을 합쳐 겹겹이 쌓아 문장을 만드니 한 글자라도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어 진실로 莊子가 이른바 “말하는 것이 마치 알랑거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sup>13)</sup>

思惟없이 제멋대로 붓을 놀렸다가 지워 버리는 방식, 虛字와 實字를 이리 저리 나열하고 고금의 雅俗의 글자를 취해서 쓰는 방식은 모두 비속하다.

### 3.2 수사론

#### 3.1.1 反語

反語는 倒反·反說·反辭라고도 한다.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표현법이다. 否定·풍자 및 조롱의 의미를 내포한다. 反語의 실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反語의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등의 문장은 反語를 짓기 좋아하지만, 또한 그 양심은 가리는 곳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가 아는 것은 잘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잘 말할 수는 없다. 무릇 반어는 모두 착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특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낮에 행동하는 것 저녁에 생각하는 것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단지 이 몇 가지만을 종일토록 익숙하게 익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각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문장을 써서 통쾌하고 결끄럽고 무딘 곳이 없다.<sup>14)</sup>

13) 36條: 自李贄以佞舌惑天下, 袁中郎、焦弱候不揣而推戴之, 於是以信筆 掃抹爲文字, 而誦含吐精微, 鍛鍊高卓者爲“敲薑呷醋”。故萬(曆(歷))壬辰以後, 文之俗陋, 亘古未有。如必不經思維者而後爲自然之文, 則夫子所云[草創(艸荆)], 討論、修飾、潤色, 費爾許斟酌, 亦“敲薑呷醋”邪? 比閱陶石簣文集, 其序、記、書、銘, 用虛字如蛛絲胃蝶, 用實字如履齒黏泥, 合古今雅俗, 堆砌成篇, 無一字從心坎中過, 眞莊子所謂“出言如哇”者。

14) 4條: 下劣文字, 好作反語, 亦其天良不容揜處。人能言其所知, 不能言其所不知。凡反語, 皆不善、不動、不慎之惡。今人晝之所行, 夜之所思, 耳之所聞, 目之所見, 特此數者, 終日習熟, 故

反語의 사용은 성현의 미언대의를 정확하게 체득하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며 하등의 문장이 된다.

### 3.1.2 對偶

자수 및 구조가 서로 유사하거나 의미가 상관 혹은 상반된 두 개의 어구 혹은 短語를 대칭되게 배열하는 수사법이다. 對偶의 사용은 意가 위주가 되어 영활하면서도 막히지 않게 한다.

對偶문장이 詩賦에서 나왔으나 西漢·盛唐 모두 意로써 주인을 삼아 영활하고 막히지 않았다. 오직 沈約·許渾과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對仗을 강구하여 工整하면서도 세련되게 한 것에 자금을 가졌으니 뛰어난 작가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는 바이다. 송나라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옛날 시구를 모아서 對偶를 만들었는데 요컨대 또한 저 법에 나아가 단지 형식만을 바꾼 것이니 그 저속함은 한결같이 이와 같다.<sup>15)</sup>

對偶에서 意가 위주가 되지 않고 기존 시구를 모아 對仗을 강구할 경우 저속하다.

### 3.1.3 代字

代字는 借代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물의 본명을 직접 말하지 않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물이 명칭을 빌어서 대신하는 수사법이다. 왕부지는 代字를 잘 운용하면 “적당하게 감정을 내포하는(正爾含情)”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景物에서 사용하면 이미 第二流로 전락하고 본래 생동적인 글자를 죽은 글자로 대신할 수 없다.

代字법이 있는데 詩賦에서 그것을 사용하니 달을 ‘望舒’라고 하고 별을 ‘玉繩’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으로 더러 이러한 방법으로 문장을 써서 색채를 내게 되면 그

自寫供招，痛快無蹇澀處。

15) 9條：對偶語出於詩賦，然西漢、盛唐皆以意爲主，靈活不滯。唯沈約、許渾一流人，以取青紀白，自矜整鍊，大手筆所不屑也。宋人則又集古句爲對偶，亦要就彼法中改頭換面，其陋一爾。

훌륭한 것은 정감을 적당하게 내포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漢 나라 시인 및 李白·杜甫·高適·岑參의 경우처럼 오히려 달갑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였다. 景物에 그것을 사용하면 이미 第二流로 전락하는데 하물며 글자가 본디 생동적인 데도 죽은 구로써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敬과 같은 것은 敬으로 더 이상 대신할 글자가 없으니 공경하는 바와 공경으로 하는 바는 바로 자연히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代字를 사용하는 것은 '欽翼'·'兢剔'으로 그것을 대신하거나 혹은 '怠荒'·'戲渝'로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것인데 바로 '敬'자를 알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게 될 뿐이다. 信을 '惇篤'이라 한 것, 仁을 '慈祥'이라 한 것, 學을 '敏求'라고 한 것, 思를 '覃精'이라 한 것, 善을 '純粹'라 한 것, 治를 '經理'라고 한 것 모두 代字이다. 선배 가운데 또한 이러한 병통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吳季子의 저작에서부터 온 것이다. 가슴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응당 이러한 방식으로 문장을 쓰지 않는다.<sup>16)</sup>

'代字'에서 특히 추상성의 어휘들을 대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 죽은 글자로 생동적인 글자를 대신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3.1.4 疊字

疊字는 동일한 글자 혹은 단음절어를 중첩하여 사용하는 수사법이다. 첩자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심화, 강조하여 의미의 돌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형식면에 있어서는 글자와 음의 정제에 의한 음악적 절주감과 생동감을 낳게 하여 그것을 보고 읊조리는 이의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sup>17)</sup>

疊字는 쪼개서 사용하면 안 되니, 예를 들면 詩賦와 같은데서 "悠悠"를 "悠"라고 하고, "迢迢"를 "迢"라고 하고, "渺渺"를 "渺"라고 하면 모두 언어가 되지 않는다. "兢

16) 23條：有代字法，詩賦用之，如月曰“望舒”，星曰“玉繩”之類，或以點染生色，其佳者正爾含情，然漢人及李、杜、高、岑猶不屑也。施之景物，已落第二義，況字本活而以死句代之乎？如敬則是敬，更無字可代，而所敬與所以敬正自隨所指而異；用代字者，以“欽翼”、“兢剔”代之，或以“怠荒”、“戲渝”反之，直是不識“敬”字，支吾抵塞耳。信曰“惇篤”，仁曰“慈祥”，學曰“敏求”，思曰“覃精”，善曰“純粹”，治曰“經理”，皆代字也。先輩中亦有此病，自吳季子小註來。有胸有心者，不應染指。

17) 李再薰, <《毛詩》疊字에 대하여>, 《中國語文論叢》 제1집, 중국어문연구회, 45쪽, 1988.12.

“兢兢業業”은 옛날에 이와 같은 문장이 사용되었는데, 또한 별로 文雅하지는 않았다. “業業”이라 한 것은 마치 鐘이나 磬 등을 매다는 나무 가름대 위의 푼니처럼, 들 들이 서로 나열되어, 위아래가 어긋나 서로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時文에서는 한 글자를 없애고서 “兢兢業業”이라고 하였는데, 하나의 “業”자는 단지 功業일 뿐임을 알지 못했으니, “兢兢”자를 연결시킨다고 어떻게 文理를 이룰 수 있으리요? 이러한 병통은 선배들에게도 또한 있었다. 그러나 稽世臣·趙南星과 같은 여러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sup>18)</sup>

疊字는 형상을 묘사는 말이든 소리를 묘사하는 말이든 모두 쪼개서 사용하면 안 되고 같은 글자가 연용해야만 한다. 쪼개서 사용하면 다른 의미가 되어 문리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警句에 대해서도 논하였는데, 왕부지는 한 편에 하나의 뜻(意)을 실어서 一氣가 관통되고 사건의 발전에 따라 始作과 終尾가 일관되게 연결되어 하나의 장이 형성되면 어느 구라도 모두 警句가 된다고 하였다.<sup>19)</sup>

#### 4. 문과 비평

明代에는 문예계에서 문과를 수립하는 풍토가 성행하였다. 문과의 수립은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문과가 수립되어 문과의 고정 격식을 표방함으로써 死法이 강구되어 천편일률이 되고 模擬의 풍조가 조성되어 창작의 자유가 구속되고 문예의 생명이 말살되었다. 또한 문과 간에 견해, 이익에 따라 상호 黨同伐異하고 이합집산하는 폐단 등을 조성하였다. 왕부지는 문과의 이러한 폐단을 《夕堂永日緒論·內編》·《夕堂永日緒論·外編》 두 편에서 언급하였다.

18) 24條: 疊字不可析用, 如詩賦“悠悠”而云“悠”, “迢迢”而云“迢”, “渺渺”而云“渺”, 皆不成語。“兢兢業業”, 舊有此文, 亦不甚雅。“業業”云者, 如筍處上崇牙, 兩兩相次, 齟齬不相安之象。時文絕去一字, 而云“兢兢”, 不知單一“業”字, 則止是功業, 連“兢兢”字如何得成文理? 此病先輩亦有。若稽川南、趙儕鶴諸公, 則必不作此生活。

19) 40條: 自始至終, 合以成章, 意不盡於句中, 孰爲警句, 孰爲不警之句哉?

#### 4.1 王鏊<sup>20)</sup>·錢福<sup>21)</sup>을 大家의 종주로 추존

經義를 논하는 사람은 王鏊를 추존하여 大家의 종주로 여겼다. 王鏊는 단지 안배가 적당하고 균제롭게 할 수 있었으니 세 칸 다섯 가(架)인 하나의 관아관청이 될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가령 의뢰하고 모방하면 별로 서로 멀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大義와 微言은 모두 연구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의 아름다운 끈으로 천하의 문인과 학자를 속박하는 것일 뿐이다. 비루한 儒者는 그가 좇아서 갈 수 있는 담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니 하나같이 ‘大家’로 여기고 그에게 돌아간다. 300여년에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되었으니 후인으로 하여금 한 세대 동안에 좋은 눈 가진 사람이 없음을 비웃지 않게 할 수 있을까?<sup>22)</sup>

王鏊 등 四大家가 문파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문장의 풍격이 溫厚하였지만 王鏊 등이 일어나서 고정격식을 표방하고 강건만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문장 풍격이 거칠고 천박한 기미가 비릇되었다. 王鏊·錢福 등을 大家로 추존하여 종주로 삼지만 王鏊의 문장 수준을 단지 안배와 균제를 적당히 하여 지은 “세 칸 다섯 가(架)인 관아관청”에 불과하다고 하고 그를 추존하여 大家의 종주로 여기고 모방함으로써 明代 300여년의 경의가 천편일물이 되었다고 하였다.

#### 4.2 충실·소박한 문장 파괴, 저속·진부한 감정과 언어 강구

錢福·王鏊가 나와서 무던 도끼로 충실하고 소박한 문장을 깨뜨리고 저속한 감정과 진부한 언사로 죽을힘을 들여서 표제를 강구하니 비루한 사람들은 비로소 나루가 생김으로써 건너게 되는 국면이 되자 일치단결하여 추존하여 받들고 ‘大家’로

20) 王鏊는 字가 濟之, 號는 守溪로 吳(지금의 江蘇蘇州市)사람이다. 成化11년에 會試에서 일등을 하였고, 벼슬이 戶部尚書·文淵閣大學士에 이르렀다. 諡號는 文恪이다. 《明史》 권 181에 그의 傳이 있다. 저작에 《震澤集》 30권이 있고 그의 팔고문집으로 《王守溪文稿》가 있다.

21) 錢福은 字가 與謙, 號는 鶴灘으로 華亭(지금의 上海松江縣)사람이다. 弘治3년에 進士에서 일등을 하였고 관직이 翰林院修撰에 이르렀다. 《鶴灘集》 6권이 있다.

22) 2條: 論經義者以推王守溪爲大家之宗。守溪止能排當停勻, 爲三間五架一衙官廡宇耳; 但令依倣, 即得不甚相遠; 大義微言, 皆所不遑研究; 此正束縛天下文人學者一微纒而已。陋儒喜其有牆可循以走, 翕然以“大家”歸之, 三百餘年, 如出一口, 能不令後人笑一代無有眼人乎?

기리니 한 시대의 문장을 쓰는 법도가 成化·弘治에 이르러 없어지게 되었다. 錢福은 時文 이외는 모종의 드러내어서 보여줄 만한 재능이 없었으니 오직《吳騷集》과 같은 음란하고 속된 산곡 몇 단락만을 전하여서 梁辰魚·陳鐸과 같은 부류의 편협하고 사악한 소인배와 장기를 다투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과연 경전의 微言을引伸하게 할 수 있을까?<sup>23)</sup>

또한 王鏊·錢福 등 소위 大家들의 수준은 “글자조차 알지 못하고 단지 平淡으로써 돋보이게 하고 초학자나 풋내기가 모방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이다. 이들은 또한 무딘 도끼로 충실하고 소박한 문장을 깨뜨리고 저속한 감정과 진부한 언사로 죽을힘을 들여서 표제를 강구하여 문장을 지었다. 그러나 비루한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그들을 大家로 추존하여 이를 본받아 문장을 지음으로써 문장을 쓰는 법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 4.3 고정격식 및 死法으로 괄호 메우고 글자 바꾸는 방식

大家로 자처하며 死法을 세우는 자들은 “모두 땅에 경계를 그려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가둔 자들”이며 死法을 수립하는 것은 “識량이 협소한 데서 기인한다.”<sup>24)</sup> 때문에 ‘虛起實承’·‘反起正倒’·‘前鉤後鎖’와 같은 死法에 의거하여 “괄호를 메우고 글자를 바꾸는 식으로 문장을 짓는다.”<sup>25)</sup> 또한 王鏊가 일어나서 문과를 세움으로써 고정격식을 표방하여 오로지 강건만을 뛰어난 것으로 삼아 천박한 기미가 이로부터 비롯되었고 《唐宋八大家文鈔》가 성행하자 문과에서는 이를 모방하고 답습하여 결과적으로 문장은 있었지만 뜻은 없는 풍조를 낳았다. 결국 經義의 문장이 사라지게 되었다.<sup>26)</sup>

23) 3條: 錢、王出, 以鈍斧劈堅木手筆, 用俗情腐詞, [着(著)]死力講題面, 陋人始有津濟, 翕然推奉, 譽爲“大家”, 而一代制作, 至成, 弘而埽地矣。鶴灘自時文外, 無他表見, 唯傳《吳騷》淫俗詞曲數齣, 與梁伯龍、陳大聲一流狹邪小人競長。如此人者, 可使引伸經傳之微言乎?

24) 《夕堂永日緒論·內篇》, 13條: 皆畫地成牢以陷人者, 有死法也。死法之立, 總緣識量狹小。

25) 14條: 欲據一“虛起實承”、“反起正倒”、“前鉤後鎖”之死法, 填腔換字。

26) 15條: 守溪起, 旣標格局, 抑專以適勁爲雄, 怒張之氣, 繇此而濫觴焉。及《文鈔》盛行, 周(萊)峰、王荊石始一以蘇、曾爲衣被, 成片抄襲, 有文字而無(意)義。

## 5. 시대비평 및 작가비평

### 5.1 시대비평

#### 5.1.1 成化·弘治

“成化·弘治의 법도와 맥락”은 법은 법이 아니고 맥락은 맥락이 아니다<sup>27)</sup>라고 하였다. 經義의 법은 제목에 따라 법을 결정하고 맥락은 신체의 12맥락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살아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成化·弘治의 경의는 법에 따라서 제목을 결정하고, 맥락은 꼭두각시의 실처럼 생기 없이 단지 끌어당기고 늘어놓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 5.1.2 萬曆

嘉靖말년에 蘇軾과 曾鞏의 문풍이 범람한 뒤에 萬曆 초년이 되어서 저속하고 명쾌하지 못한 문장의 풍조가 시작되었다.<sup>28)</sup> 萬曆 중엽에는 저속한 가락이 유행하고<sup>29)</sup> 嬌艷하고 晦澀한 악습으로 문장을 쓰는 풍조가 일어났다.<sup>30)</sup> 萬曆의 壬辰에 이르러 문장에서 글자 표면의 뜻을 취하여 장난하는 풍조가 흘러 넘쳤고<sup>31)</sup> 萬曆 壬辰년 이후로는 또한 문장의 비속과 천루가 매우 심했다.<sup>32)</sup> 萬曆 말년에는 李若愚가 고아하면서 힘 있는 문필로 연약하고 浮靡한 필치를 몰아내고 方應祥은 유창하면서 구속받지 않는 문장으로 용렬하고 비속하며 거칠고 번잡한 풍조를 중단시킴으로써 雅正의 음조를 가진 문장이 회복되었지만 전인

27) 5條: 特世所謂“成、弘法脈”者, 法非法, 脈非脈耳。

28) 17條: 承嘉靖末蘇、曾汜濫之餘, 當萬曆初俚調啾噉之始。

29) 16條: 當萬曆中年, 俚調橫行之下。

30) 20條: 曆中年杜〔撰(□)〕嬌澀之惡習, 未必不緣此而起。

31) 21條: 文字至撮弄字面, 而穢極矣。黃葵陽已啓其端, 至萬曆壬辰而益濫。

32) 36條: 故萬〔曆(麻)〕壬辰以後, 文之俗陋, 亘古未有。

의 부드럽고 온화하며 경건하며 엄숙한 법도를 받아들이고 취하는데 서두르지 않았다.<sup>33)</sup> 萬曆 이후로 작은 제목의 문장을 지었는데 해학적이고 법도를 잃은 것, 내용은 없고 음란스러우면서 우아하지 못하였다.<sup>34)</sup>

### 5.1.3 崇禎·天啓

崇禎년간에는 萬曆의 壬辰의 문장에서 글자 표면의 뜻을 취하여 장난하는 풍조를 씻어내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미혹하고 마음을 상란하게 하는 말이 進士考試를 위해 권장되어 문장이 고루해지고 文士의 습성이 구차스러워졌다.<sup>35)</sup>

天啓 이후로는 생원들이 모임을 갖고 지은 문장들이 넘쳤지만 지름길을 헤아리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다.<sup>36)</sup>

## 5.2 작가비평

### 5.2.1 王鏊

王鏊는 字가 濟之, 號는 守溪로 吳(지금의 江蘇蘇州市) 사람이다. 成化11년에 會試에서 일등을 하였고, 벼슬이 戶部尙書·文淵閣大學士에 이르렀다. 諡號는 文恪이다. 《明史》 권181에 그의 傳이 있다. 저작에 《震澤集》 30권이 있고 팔고문집으로 《王守溪文稿》가 있다.

邱濬<sup>37)</sup>이 “被髮左衽”, “弱肉強食” 두 對偶구로써 王鏊를 천거하였는데, 王鏊의

33) 15條: 萬曆之季, 李愚公始以堅着驅軟媚, 方孟旋始以流宕散俗冗, 稍復雅正之音, 於先正冲穆之度未遑領取。而其變也, 亦足以起久病之厄矣。

34) 48條: 萬曆後作小題文字, 有諧謔失度, 浮艷不雅者。

35) 21條: 崇禎間諸名人力爲洗滌, 然猶有云: “天無子, 人之聖者爲其子; 海無內, 人之聖者居其內。”(“德爲聖人”四句會墨) 如此迷惑喪心之語, 猶拔作南宮首卷, 文字安得不陋, 士習安得不偷邪?

36) 54條: 天啓後, 社稿充斥, 終不脫揣摩蹊徑。

37) 邱濬은 邱濬은 字가 仲深으로, 琼山(지금의 海南 琼山縣) 사람이다. 明 景泰5년에 進士에 올랐다. 관직이 禮部尙書·文淵閣大學士 등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莊이다. 《明史》 권181에 그의 傳이 있다. 《瓊臺類稿》 52권, 시집 12권이 있다.

대우는 7세 동자가 시골 글방의 사숙에서 얻은 등급일 뿐이다. 더욱이 王鏊는 韓愈의 문장으로 경서의 말에 對偶를 이루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는 단지 하나의 韓愈만을 알고 한유를 孔子와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sup>38)</sup> 王鏊는 또한 한 자 길이 폭으로 자르고 마름질 하여 법식으로 삼음으로써 의미와 정취가 삭막해졌고 단지 후인의 우스갯말 짓는 것과 약간 다를 뿐이다.<sup>39)</sup>

### 5.2.2 楊起元

楊起元은 字가 貞復, 號가 復所인데 歸善(지금의 上海 松江縣)사람이다. 명말 문학가로 羅汝芳의 제자이다. 萬曆5년에 進士가 되었고 吏部左侍郎의 관직을 여러 번 역임하였다. 시호는 文懿이다. 《南中論學存笥稿》 4권이 있다.

楊起元은《宦稿》에서만 經義를 빌어 학문을 강구하여 그 뜻이 좋았지만 陽明學派에 의하여 속임 당하고 식견이 치우치고 간사할 뿐만 아니라 文氣 또한 촉박하여 쇠약하다.<sup>40)</sup>

### 5.2.3 張以誠과 許癡

張以誠은 字가 君一, 華亭(지금의 上海 松江縣) 사람이다. 萬曆 29년에 進士가 되고 翰林院 修撰에 올랐다. 《酌春堂集》 10권이 있다. 許癡는 字가 子遜(鍾斗 라고도 함), 號는 同安(지금의 福建省)사람이다. 《鍾斗集》 5권이 있다.

張以誠은 비록 이치를 강구하였지만 깊게 빠지지는 않고 홀로 高雅한 풍도를 보존하였다. 許癡는 마음을 기만하는 문장이 극에 달했다. 許癡의 《樂則生矣》과 같은 문장에서 강론을 시작하는 곳에는 여러 개의 ‘樂’字가 있는데 이해

38) 9條: 邱仲深自詔博雅, 而以“被髮左衽”、“弱肉強食”兩偶句推獎守溪, 此七歲童子村塾散學課耳。況以韓文對經語, 其心目中止知有一韓退之, 謂可與尼山竝駕。陋措大不知好惡, 乃至於此!

39) 49條: 經義之設, 本以揚推大義, 剔發微言; 或且推廣事理, 以宣昭實用。小題無當於此數者, 斯不足以傳世。其有截頭縮腳, 以善巧脫卸吸引爲工, 要亦就文句上求語氣, 於理固無多也。守溪作此, 以剪裁尺幅爲式, 義味亦復索然, 特不似後人作譚語耳。

40) 53條: 唯楊貞復《宦稿》借經義講學, 其意良善, 乃又爲姚江之學所賺, 非徒見地詖淫, 文氣亦迫促衰弱, 深可惜也。

하기 어려우며 색채만 찬란하고 “岳”음과 “雒”음도 알지 못한 것으로 그의 마음은 고기 덩어리와 같고 여기에 침 구멍 하나라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sup>41)</sup>

#### 5.2.4 顧憲成

顧憲成은 字가 叔時, 別號는 涇陽으로 無錫사람이다. 萬曆에 進士에 급제하고 戶部主事에 임명되었다. 당시 집정관을 공격하는 상소내용으로 桂陽州의 관관으로 폄적되었다. 관직이 여러 번 옮겨져 吏部郎中에 이르렀다. 조정에서 내각의 신하를 천거하는데 황제의 뜻을 거슬러서 면직되어 돌아갔다. 그의 顧允成과 東林書院을 이끌고 개수하여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학문을 논하였다. 이로써 東林이라는 이름이 크게 드러났는데,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東林黨이라 하였다. 朋黨의 화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端文이다. 《明史》 권231에 그의 傳이 있다. 현존하는 저작으로 《涇臯藏稿》 22권, 《小心齋箚記》, 《顧端文遺書》 등이 있다.

顧憲成은 嘉靖말년과 萬曆초년에 蘇軾과 曾鞏의 문풍이 범람하고 저속하고 명쾌하지 못한 문장의 풍조가 일어난 상황에서 넓고 크며 널리 통달한 재주를 가지고 大義를 곧추 세우고 微言을 분석하여 마치 큰 산이 우뚝 솟아오른 것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로써 制藝가 생긴 이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王鏊와 唐順之로부터 ‘大家’라는 명성을 빼앗아 顧憲成에게 부여해야 한다. 세속에서는 顧憲成이 경지에 오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러워하지 않을 뿐이다.<sup>42)</sup> 顧憲成은 또한 超逸하며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이쪽으로도 마땅하게 하고 저쪽으로도 범도가 있게 하여 붓이 손을 따라 움직이면 범도에 합치되고 意가 이르면 말이 따르게 되어 더 이상 그것을 가리고 고르데 있어서 힘쓰

41) 16條: 有張君一(以誠), 雖入理未深, 而獨存雅度。君一與許子遜同時。昧心之作, 至子遜而極。其《樂則生矣》一段文字, 開講處有數“樂”字, 鳥語班闌 不知音“岳”音“雒”, 猶可謂肉團心有一鍼孔乎?

42) 17條: 承嘉靖末蘇、曾汨濫之餘, 當萬曆初俚調伊嘸之始, 顧涇陽先生獨以博大弘通之才, 豎大義, 析微言, 屹然嶽立, 有制藝以來無可匹敵。奪王、唐“大家”之名以推轂先生, 雖閱百世, 不能易吾言也。但以無可躋攀, 爲流俗所不歎美耳。

지 않은 경지가 되어, 독서하여 (문장의)이치를 파악한 사람이 아니면 그의 나루를 건넜다고 인정할 수 없다.<sup>43)</sup>

### 5.2.5 黃淳耀

黃淳耀는 字가 蘊生, 號는 陶庵으로 嘉定(지금의 上海市)사람이다. 崇禎16년(1643)에 進士가 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였다. 南都가 망하고 淸兵이 嘉定을 무너뜨리자, 그의 아우 淵耀와 함께 목 매어 죽었다. 그는 科擧文의 浮靡하고 淫麗함을 철저히 반대하고 《六經》을 근본으로 하는 典雅함을 추구하였다. 저작으로 《陶庵全集》 22권이 있다.

黃淳耀는 顧憲成의 작풍을 탐구하였지만 견식이 밝지 못하고 方大에 있어서 는 잘 하였지만 收斂에 있어서는 잘 하지 못했다.<sup>44)</sup> 그러나 黃淳耀의 문장은 모두 意가 있어 歸有光이 필적할 수 없었다. 단지 역사에 의해서 곤궁을 당하고 또 韓愈·蘇軾의 문장을 모방하고 취하여 우뚝 설 수 없었을 뿐이다. 黃淳耀는 국운이 기울어가는 때에 외적으로는 遼東의 화가 닳치고, 내적으로는 떠돌이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조정내각에는 우두머리로 溫體仁·周廷儒·楊嗣昌·薛國觀과 같은 姦臣, 시종관으로 張彝憲·曹化淳과 같은 쯤벌레 같은 사람들에 대한 근심과 분노가 가슴을 메웠고 그것을 經義에 함축시켜서 그의 충심을 토로하였다.<sup>45)</sup>

### 5.2.6 歸有光

歸有光是 字가 熙甫, 昆山(지금의 江蘇에 속함)사람으로 '震川先生'이라 불린다. 嘉靖44년에 進士가 되고 벼슬이 南京太僕丞에 이르렀다. 문장에서 唐·宋

43) 33條: 至若涇陽先生, 以龍躍虎踞之才, 左宜右有, 隨手合轍, 意至而詞隨, 更不勞其揀擇, 非讀書見道者, 未許涉其津溪。

44) 17條: 黃蘊生欲問津焉, 而見地不做, 能放而不能收。

45) 18條: 蘊生言皆有意, 非熙甫所可匹敵; 但爲史所困, 又染指韓、蘇, 未能卓立耳。然蘊生當天步將傾之日, 外則(遼)左禍逼, 內則流寇遽起, 黃扉則有溫、周、楊、薛之姦, 中涓則有張彝憲、曹化淳之蠹, 憂憤填胸, 一寓之經義, 抒其忠悃。傳之異代, 論世者所必不能廢也。

을 종주로 하고 王世貞을 적극 비판하였다. 王慎中·唐順之 이후 唐宋派 古文家의 영수가 되었고 八股文으로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 《震川集》 30권, 別集 10권이 있다. 《明史》 권287 《文苑》에 그의 傳이 있다.

歸有光은 단지 纖弱을 버리고 솔직하며 시원시원함으로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였다. 밖은 살찌서 기쁨기가 번드레하지만 안쪽은 말라서 수척하며 한 마디 말도 가슴에서 나온 것이 없다.<sup>46)</sup> “밖은 살찌고 안은 말랐다”라는 것으로 歸有光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는 또한 단지 구조나 격식에만 힘을 써서 제목의 이치에는 전혀 체득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그 연결하는 곳에서는 억지로 꾸며 만들어 자연스런 법도가 없기 때문에 許穀·張元의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sup>47)</sup>

### 5.2.7 陳際泰·金聲

陳際泰는 字가 大士로 臨川(지금의 江西에 속함)사람이다. 崇禎4년에 進士가 되었는데 당시 나이 68세였다. 《明史》 권288 《文苑》 4 艾南英의 傳에 그의 傳이 부록되어 있다. 그의 傳에는 “艾南英 부류와 더불어 時文으로 천하에 유명하였다. 문장을 짓는데 매우 민첩하여 하루에 2,30수를 지어 전후로 지은 문장이 萬首에 이르렀으니 經生들 가운데 팔고문이 많기가 陳際泰만한 자가 없었다(與南英輩以時文名天下. 其爲文, 敏甚, 一日可二三十首. 先後所作至萬首, 經生舉業之富, 無若際泰者.)”고 하였다. 《太乙山房集》 14권이 있다.

金聲은 字가 正希, 休寧 사람이다. 崇禎 원년에 進士가 되고 庶吉士에 제수되었다. 시호는 文毅이고 《明史》 권277에는 그의 傳이 있다. 《金太史集》 9권이 있다.

陳際泰의 經義는 역사적 색채를 띠고 직선적이다.<sup>48)</sup> 그는 3개월에 21史를

46) 18條: 熙甫但能擺落纖弱, 以亢爽居勝地耳, 其實外腴中枯, 靜扣之, 無一語出自赤心。

47) 35條: 以“外腴中枯”評歸熙甫, 自信爲允. 其擺脫軟美, 蹶厲而行, 亦自費盡心力. 乃徒務(間)架, 而於題理全無體認, 則固不能爲有無也. 且其接縫處矯虔無自然之度, 固當在許石城, 張小越之下。

48) 19條: 陳大士史而橫。

두루 읽었다고 博通과 충민을 과시하였지만 그 “하늘이 높다”와 같은 문장에 있어서 曆法에 대해 경솔하고 또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글에 오류를 범하였다. 陳際泰는 스스로 박통과 충민을 과시하였기 여겼기 때문에 經義의 道를 문란 시켰다.<sup>49)</sup>

金聲의 經義는 불교적 색채를 띠고 곡선적이다. 만약 이 두 사람을 벗어나 經義 짓는 방법을 별도로 탐구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는 경지에 홀로 이르러 있게 되면 歸有光의 무리가 격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낫다.<sup>50)</sup>

### 5.2.8 孫鑛

孫鑛은 字가 文融, 號는 月峰으로 餘姚사람이다. 萬曆 2년에 進士가 되어 관직이 南京 兵部尙書에 이르렀다. 孫鑛은 晚明의 저명한 評點家로 평신한 책이 매우 많다. 《孫月峰評經》 16권, 《今文選》 12권 등이 있다.

孫鑛은 완곡한 필치로 말 가운데의 의미를 확대하고 움직이게 하였는데 짐작하며 절도가 있어 자연히 雅正의 문장을 지었다. 그러나 만년이 되어 문장을 논하고, 《考工記》·《檀弓》·《公洋傳》·《穀梁傳》 등의 여러 전적을 수정하고 문장부호를 붙이고 특이한 말을 골라내어奇特的 문장을 만들어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아찔하게 하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잃은 바가 컸다. 萬曆 중기에 嬌艷하고 晦澀한 문장풍조가 이것에서 기인하여 일어났다.<sup>51)</sup>

### 5.2.9 湯賓尹·田一儁·黃洪憲

田一儁은 字가 德萬으로 大田(지금의 福建에 속함)사람이다. 黃洪憲은 字가

49) 46條: 陳大士自云三月而徧讀廿一史,目力之勝可知。乃其“天之高也”一節文字,於曆法粗率且未曉了,出語便成差異。想其讀史時,於曆志無能曉處,便擲向一壁去。先輩於所未知,約略說過,卻無背戾,惟不欲誇博敏。大士以博敏自雄,故亂道。

50) 19條: 金正希禪而曲。若其離此二者,別尋理際,獨至處自成一,固賢於歸熙甫之徒矜規格也。

51) 20條: 孫月峰以紆筆,引伸搖動言中之意,安詳有度,自雅作也。乃其晚年論文,批點《考工》、《檀弓》、《公》、《穀》諸書,剔出殊異語以爲奇陷,使學者目眩而心癡,則所損者大矣。萬曆中年杜[撰]嬌澀之惡習,未必不緣此而起。

懋中, 號는 葵陽으로 秀水(지금의 浙江 嘉興市の 북쪽에 속함)사람이다. 隆慶5년에 進士가 되었고, 관직이 少詹事에 이르렀다. 저작으로 《朝鮮國紀》·《碧山學士集》이 있다.

湯賓尹은 음탕하고 질투 많은 소인으로 눈을 더럽히고 귀를 떠들썩하게 하는 더러운 말을 써서 경의를 짓는 풍조를 조장하여 문단전체에 퍼뜨림으로써 이러한 풍조를 사라지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田一僞·黃洪憲이 이러한 풍조를 조기에 앞장서서 이끌었다.<sup>52)</sup>

### 5. 2. 10 陶望齡

陶望齡의 문집에서 그의 序·記·書·銘은 虛字를 사용함이 마치 거미줄이 나비를 걸리게 하는 것처럼 하고 實字를 사용함이 나막신 굽에 진흙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고금의 雅俗을 합쳐 겹겹이 쌓아 문장을 만들어 결국한 글자라도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다.<sup>53)</sup>

### 5. 2. 11 周延儒

周延儒는 字가 玉繩이고, 江蘇 宜興 사람이다. 萬曆41년에 會試·殿試에서 모두 1등을 하였다. 崇禎2년에 입각하여 이듬해 內角首輔가 되었다. 溫體仁에 의하여 배척당하여 돌아갔다. 온체인이 패하자 다시 기용되었다. 《明史》 권 308 《奸臣》에 그의 傳이 있다.

周延儒는 “어찌 그대 생각 없으리요”·“동쪽 집의 담장을 뛰어 넘는다” 등과 같은 음란하고 추잡한 말을 짓는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sup>54)</sup>

52) 22條: 湯賓尹以姪媚小人, 益鼓其焰, 而燎原之火, 卒不可撲, 實則田一僞、黃洪憲倡之於早也。

53) 36條: 比閔陶石簣文集, 其序、記、書、銘, 用虛字如蛛絲胃蝶, 用實字如履齒黏泥, 合古今雅俗, 堆砌成篇, 無一字從心坎中過。

54) 48條: 妖孽作而妖言興, 周延儒是已。萬[曆(麻)]後作小題文字, 有諧謔失度, 浮艷不雅者, 然未至如延儒; 以一代典制文字引伸聖言者, 而作“豈不爾思”、“踰東家牆”等淫穢之詞, 其無所忌憚如此。伏法之後, 閩門狼籍不足道; 乃令神州陸沈而不可挽, 悲夫!

## 5.2.12 錢禧 · 顧夢麟

錢禧는 字가 吉士이고, 吳縣(지금의 江蘇에 속함)사람이다. 復社 社員이다. 顧夢麟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天啓 이후로 生員들이 모임을 갖고 지은 문장들이 넘치고 문장을 지움에 있어서 지름길을 헤아리는 것을 먼치 못하자, 錢禧 · 顧夢麟은 당시의 이러한 추세를 만회하려 하였지만 재능은 변변치 못하였고 취지는 자연 저속하였다.<sup>55)</sup>

## 5.2.13 熊秉 · 李雲田

熊秉은 字가 渭公이고 黃岡 사람으로 武昌으로 거처를 옮겨 살았다. 李雲田은 字가 雲田, 別號는 老蕩子로 漢陽(지금의 武漢市)사람이다. 崇禎시기의 貢生이다. 박학다식하였고 독서를 좋아하였으며 科擧에 연연하지 않고 詩로써 세상에 이름을 내었다.

熊秉 · 李雲田은 유연하고 변통성 있는 말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을 범하지 않았고, 더 이상 억지로 고인의 자구로 빠져들지 않고 정수를 취하고 진액을 정제하여 고요한 빛으로 微言을 표현하였다.<sup>56)</sup>

## 6. 나오며

왕부지는 經義를 四書五經의 微言大義를 천발하고 事理를 추리 확충하여 實用을 선양하기 위한 글쓰기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글쓰기에서 왕부지가 강조하는 글쓰기 및 예술 정신을 고찰할 수 있다. 첫째, 聖賢의 경전 및 저작과 응

55) 54條: 天啓後, 社稿充斥, 終不脫揣摩蹊徑。若錢吉士、顧磨士輩, 欲矯時趨, 而本領既薄, 指趣自卑。

56) 54條: 因憶昔與黃岡 熊渭公(秉)、李雲田(以默)作一種文字, 不犯一時下圓熟語, 復不生入古人字句, 取精煉液, 以靜光達微言。所業未竟, 而天傾文喪, 生死契闊, 念及祇爲哽塞。

화하여 일체가 되고 가슴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意)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둘째, 독서궁리 및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수를 취하고 진액을 정제하여 高雅·雅正의 풍격을 형성하고 高超·卓越의 문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구 및 수사에서 誠實·간결을 강조하고 조탁·기교를 반대하였다. 이것은 문자의 강구를 반대하고 뜻을 곡진하게 표현하기 위한 언어운용을 강조한 것이다. 넷째, 문파를 반대하였다. 이것은 문파의 고정격식 및 死法 등으로 인하여 기계주의적, 형식주의적 창작을 추구하여 창작의 자유가 구속되고 문예의 생명이 말살되기 때문이다. 풍격에서 高雅·雅正·온화·경건의 필치를 강조하고 저속·교염·회삽 등의 풍격을 반대하였다. 작가는 넓고 크며 널리 통달한 재주로서 大義를 곧추 세우고 미인대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가슴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치우치고 협소하며 추잡하고 음란한 글을 짓는 작가들을 반대하였다. 작가는 經世致用的 시대적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經義의 이러한 글쓰기 정신은 현대 혹은 미래에도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정신문화유산이다.

본고는 《夕堂永日緒論·外篇》의 經義論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왕부지의 글쓰기 및 예술정신을 살필 수 있고 經義에 대한 종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經義의 시대적 풍조, 작가들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參考文獻 >

- 王夫之 著, 《船山全書》(全 十六冊), 湖南, 嶽麓書社出版社, 1988-1996.  
 王夫之 著, 《王船山詩文集》(上·下),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  
 曾昭旭 著《王船山哲學》, 遠景出版社, 民國72年.  
 褚斌杰 著, 《中國古代文體概論》(增訂本), 北京大學出版社, 1990.

## &lt; 中文提要 &gt;

本文對王夫之《夕堂永日緒論·外篇》進行了分析研究，考察了王夫之對經義與讀書、字句運用及修辭論，門派、時代及作家批評的內容。在王夫之看來，闡發經義“本以揚榷大義，剔發微言；或且推廣事理，以宣昭實用。”他認為經義是發揮、演繹經書中聖賢“精義”、“微言”進而推廣、宣昭“事理”、“實用”的寫作。爲了到達這樣的目的，王夫之著重強調以下五個方面的內容。第一、“以意爲主”，“意”就是與“聖賢傳融液胈合，自胸中流出”的。第二、應樹立讀書窮理的觀念和思想，從而形成高雅、雅正的風格，寫作出高超、卓越的文字。第三、在字句運用及修辭上強調“誠實”、簡練，反對“琢”、技巧。他反對玩弄文字遊戲，強調曲盡其意的字句運用及修辭。第四、反對門派之分以及因門派格局而造成的拘泥僵化，反對追求機械主義、形式主義的寫作，這將導致寫作的自由及生命的拘束和喪失。第五、作家應具備以博大弘通之才豎立大義、分析微言的素質，抒發自己胸中真性情的流淌，不該被經典原文及前人創作捆縛手脚而不能前行。過去時代經義的闡釋精神是現代及未來我們仍應追求的精神文化遺產。

關鍵詞：王夫之、經義、《夕堂永日緒論·外篇》、修辭論、門派、批評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3. 6. 29. | 2013. 8. 8. | 2013. 8. 19. | 2013. 8. 22. | 2013. 8. 31. |